

전북도, 여름철 자연재난 총력 대응

15일~10월 15일까지 24시간 상황근무체계 구축... 시·군·유관기관 등과 도민 생명·재산 보호 집중

전북도가 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태풍·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한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하며, 자연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전북도 만들기에 나선다.

도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13개 협업 기능별 상황근무 원칙을 마련해 임무와 역할을 지정하고, 24시간 상황근무체계를 구축,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

예비특보단계부터 신속한 상황판단 회의 운영과 5단계 비상근무체계를 구축, 재난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보고·대응체계를 가동해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홍수해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비상 3단계 근무기준을 강화하고, 비상 2단계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판단 회의에서 수자원공사 등 17개 유관기관을 소집 가능토록 정비했다.

또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재해

위험개선지구, 산사태 취약지역, 대규모 건설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추진과 인명피해 우려 재해취약지역을 확대 지정해 안전관리 사각지대 발굴·예찰 강화를 통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침수 발생이 우려되는 둔치 주차장에는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 알람시스템'을 6월 말 이전에 완공하고, 지하차도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침수위험 지하차도 자동 차단 시스템'을 우기 전에 조기 구축할 예정이다.

더불어, 현장 대응 조직인 읍면동의 재난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자율방재단을 읍면동 단위로 확대·개편하면서 1,179명을 추가 모집, 4,389명의 자율방재단을 구성, 여름철 재해위험지역 사전 예찰과 구조활동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기 이전인 6월 중 도내 배수펌프장(118개) 및 우수저류시설

(15개)에 대해 가동상태,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등 전수 점검해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를 예방할 예정이다.

한편, 유관 기관인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홍수 조절 용량이 부족한 섬진강댐의 경우 홍수기 제한수위를 하향·조정해 홍수 대비 여유 용량 확보하는 등 댐 관리체계를 정비한다.

음단, 섬진강댐의 경우 '댐 방류 사전예고제' 도입으로 관계기관에 댐 방류 정보를 기존 3시간 전에서 최소 24시간 전에 사전 예고해 주민들에게 사전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부여하고, 댐 방류 의사결정 전문성 확보를 위해 수자원공사 내 홍수조절 위원회를 구성, 지역주민·지자체와 '댐 운영 협의' 소통회의를 구성해 댐 운영 정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은 "지난해 유례없는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많은 재산피해와 소중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올해에는 시·군, 유관기관 등과

협업해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도정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실장은 "도민 스스로가 내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점검·정비 등을 통한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안전 의식과 사전 예방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수해 지역에 대해 피해복구사업 2,054건 중 40%인 951건을 완공했으며, 1,000건은 공사 진행 중이고, 13건은 설계 진행 중이다.

또, 전북도는 우기철 이전인 6월 말까지 98%에 해당하는 2,016건을 완공한다는 방침이고, 우기전 완료가 어려운 38건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취약 구간 및 주요 구조물을 우선 시공, 시설보강 및 수방자재 비치 등 사전 안전조치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농촌공감여행' 사업 본격 시행

전북도, 농촌체험휴양마을·농촌융복합산업경영체 방문 도시민에게 숙박·식사·체험 비용 최대 50%까지 할인

전북도가 도내 농촌체험휴양마을과 농촌융복합산업경영체를 방문한 도시민에게 숙박, 식사, 체험 등 농촌여행 비용을 지원하는 '농촌공감여행'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농촌공감여행'은 농촌여행을 통해 농촌의 가치를 깨닫고, 농촌 마을을 지속 방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농촌여행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우수 인증한 도내 농촌체험휴양마을이나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60개소를 방문했을 경우, 숙박·식사·체험 비용을 최대 50%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농촌공감여행의 운영방식을 개선해 참여자의 혜택을 늘리고, 농촌관광시설의 유형도 확대하며, 도시와 농촌이 공감하고 상상하는 폭을 넓혔다.

또한, 코로나 시대의 여행 트렌드에 맞춰 4인 미만의 나홀로 여행

족, 연인, 가족도 할인받을 수 있으며, 여름 성수기 방문객에게는 현금할인 대신 지역농산물로 할인 보상을 받아 농촌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했다.

조효일 도 농촌활력과장은 "전북도는 코로나 시대에 맞게 농촌 마을별로 특색있는 체험콘텐츠 개발과 고객 서비스 개선에도 주력했다"며 "가족이나 모임 등 소규모 관광객들이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가 풍성한 전북도 농촌마을에서 농업·농촌의 가치를 느끼고, 휴식을 즐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 농촌공감여행에 참여를 원하는 가족, 모임, 동호회, 학교, 기업 등 단체의 경우, 전북도농어촌종합지원센터 누리집(www.jbft.co.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센터 농촌관광부(063-717-0150)로 문의하면 된다.

/유호상 기자

AI 활용 흰다리새우 스마트양식 초석 다진다

도 수산기술연구소,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공모 선정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이하 연구소)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이하 사업)' 공모에서 최종 수혜 기관으로 선정돼 국비 19억원을 지원 받는다.

이번 사업은 한국판 뉴딜의 대표사업으로 데이터를 구축·개발해 국가 및 사회 전반의 지능화 혁신 서비스를 확산하고, 데이터 수집·정제·가공·검증과정에 직접고용과 함께, 클라우드소싱 방식을 도입해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연구소는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반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의 선두주자인 원투씨엠(주) 등 4개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노동집약적인 흰다리새우 양식에서 벗어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양식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능형 스마트양식 인공지능 데이터 구축사업'을 제안,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컨소시엄의 주관기관인 원투씨엠은 인공지능 모델 품질관리 등 사업의 전체를 총괄하고, 도 수산기술연구소는 데이터 수집 역할 등 실무를 책임진다.

기반인태내셔널과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및 한국농수산대학(위탁용역)은 수집된 데이터의 검수와 품질관리

를 합동 수행하고, 미래농업포럼은 클라우드소싱 인력 관리 및 교육을 담당한다.

연구소는 사업 추진을 위해 흰다리새우 실내 순환여과 양식기술 연구과정에서 성장 이미지, 수질환경 데이터(수온, DO, pH, 염도 등) 각 10만 건씩 총 20만 건을 수집한 후 검수과정을 거쳐 양질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가공할 예정이다.

구축된 데이터는 대중에 개방되므로 양식어가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수산기술연구소 등 수행기관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19억원을 지원받는데, 약 71%인 13.5억원을 인건비로 배정했다.

이 중 데이터 수집 및 가공 등의 과정에서 근무할 인력 100여명을 클라우드소싱 방식으로 채용할 예정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운동목 도 새만금해양수산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디지털 뉴딜의 핵심 요소인 인공지능과 흰다리새우 양식 데이터의 접목을 성공적으로 이뤄내 자율제어 스마트양식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력을 다해' 원산소방서 대원들이 13일 전주경륜장에서 전라북도 소방기술 경연대회를 앞두고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전북도, 스마트팜 청년창업 4기 현장설명회 개최

전북도는 13일 전주 더 메이호텔에서 청년창업 농업인 양성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오프라인 참석을 최소화하고, 농정원 스마트팜 TV 유튜브 채널을 통한 생중계와 비대면 현장 설명회가 동시에 진행됐다.

전북 농식품인력개발원에서 추진하는 이번 교육은 선발된 교육생을 대상으로 8월 말부터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52명의 교육생을 선발하는 교육과정은 만 18세 이상부터 40세 미만의 청년이며, 스마트팜 취·창업에 희망하는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교육은 영농 지식과 기반이 없는 청년도 스마트팜에 취·창업할 수 있도록 입문 교육(2개월), 교육형 실습(6개월), 경영형 실습(12개월)으로 총 20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과정을 수료한 교육생에게는 취·창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유호상 기자

'즐거움·치유 농촌관광으로'

전북연구원, 마을형 농촌치유관광 활성화 위한 방안 제안

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이 농촌마을의 체험활동·농촌관광과 치유농업이 결합한 '마을형 농촌치유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전북연구원 이수브리핑 '전라북도 마을형 농촌치유관광 모델 구축 방안'(통권 24호)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안전, 건강 등에 위협적으로 인식되는 공간들이 증가하면서 심리적 피로뿐만 아니라 물리적·사회적 공간 축소로 누적되고 있는 일상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 최근 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해 '치유'에 관심이 증가하면서 위로와 여유를 경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공간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딱거리 생산뿐만 아니라 6차 산업, 관광, 복지 등 농업의 다기능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국민의 건강 도모를 위한 농업활동 및 산업인 '치유농업'이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 도시민의 자연 친화적 여행 수요는 농촌공간에 주목하며, 농촌은 농업·농촌 자원을 통해 코로나에 지친

도시민의 건강 회복과 힐링 가능한 공간으로 재구성되고 있다.

농촌체험관광의 '즐거움'에서 '즐거움과 치유'로 전환은 코로나19로 지친 도시민의 여행 욕구를 충족하며, 농촌관광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에, 전북연구원은 전북의 농촌마을이 도시민의 치유의 공간이자 즐거움의 공간으로 재구성된 농촌치유관광에 도시민의 관심이 증가될 것이며, 마을 중심 농촌 치유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전북 마을형 농촌 치유관광 모델을 제시했다.

연구책임자를 맡은 조원지 박사(산업경제연구부)는 "코로나로 증가하고 있는 도시민의 스트레스를 농업활동으로 경감시킬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전북도는 마을들이 가지고 있는 농업·농촌 자원이 풍부하다"며 "농촌마을이 가지고 있는 즐길거리, 먹거리, 볼거리 등과 함께 치유가 결합된다면, 최근 도시민의 여행 욕구와 부합될 것이며, 농촌마을관광이 농촌치유관광으로 주목받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